

카라이프

어떤 차를 타야 하나... 새해 신차 붐물



기아차 신형 모닝



현대차 신형 그랜저

국산·수입차 70여종 쏟아진다

신묘년 새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국산 차 20여종, 수입차 50여종 등 70여종에 달하는 신차가 출시돼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 대형·준대형·신형 그랜저 돌풍 예고 =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차급은 준대형이다.

현대차가 새해 시작과 함께 신형 그랜저를 내놓고 르노삼성차도 하반기 SM7의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인다.

가장 먼저 나온 신형 그랜저는 '웅장한 활공(滑空)'을 뜻하는 '그랜드 글라이드(Grand Glide)'를 기본 콘셉트로 디자인했다.

수입차 중에서는 아우디가 A7 스포츠백, BMW가 528i X드라이브 라인업을 다양화하며, 크라이슬러는 미국에서도 화제를 일으킨 고성능 세단 200C를, 볼보는 내·외관을 완전히 바꾼 신형 S60을 내놓는다.

▷ 준중형-현대·기아 독주 속 수입차도 전장 = 준중형은 현대·기아차의 독주체제가 굳어지는 가운데 폭스바겐과 도요타 등의 수입차들이 도전장을 내미는 형국이다.

▷ 중형-쏘나타·K5·SM5 3파전 속 시보레 주목 = 현대 쏘나타와 기아 K5, 르노삼성 SM5의 3파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GM대우가 하반기에 선보일 토스카 후속모델에 시선이 모아진다.

신형 그랜저 출시... K7·알페온과 치열한 격돌 중형 쏘나타·K5·SM5 3파전 속 시보레 도전 SUV·CUV·MPV시장 수입차 무차별 공세



GM대우 시보레 아베오

거리다. 현대·기아차는 상반기 중 쏘나타와 K5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로운 승부를 건다.

수입 브랜드는 아우디가 A6의 완전변경 모델을, 폭스바겐이 신형 제타를 각각 선보인다.

▷ 준중형-현대·기아 독주 속 수입차도 전장 = 준중형은 현대·기아차의 독주체제가 굳어지는 가운데 폭스바겐과 도요타 등의 수입차들이 도전장을 내미는 형국이다.

▷ 중형-쏘나타·K5·SM5 3파전 속 시보레 주목 = 현대 쏘나타와 기아 K5, 르노삼성 SM5의 3파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GM대우가 하반기에 선보일 토스카 후속모델에 시선이 모아진다.

GM대우는 라세티 프리미어(시보레 크루즈)의 해치백 모델을 올해 중반에 유럽 시장에 선보인 뒤 국내에 출시한다.

폭스바겐 골프 블루모션 모델과 도요타 코롤라가 상륙해 하반기에 도전장을 던진다. 1.6 TDI 엔진을 탑재한 골프 블루모션은 l 당 26km라는 기록적인 연비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준중형차 중 하나인 도요타 코롤라는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 SUV·MPV-큐브 등 수입차 줄줄이 상륙 = GM대우와 수입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SUV와 CUV, 다목적차량(MPV) 등이 줄줄이 상륙한다.

GM대우는 패밀리카와 미니밴의 특성을 모두 갖춘 MPV 시보레 올란도를 상반기 중 출시한다.

력의 힘을 내뽐는다. GM대우는 국내 출시 후 올 여름에 5도어 해치백과 4도어 세단을 유럽 시장에 출시해 수출 주력 모델로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아차는 하반기에 프라이드 후속 모델을 선보여 현대차 엑센트, GM대우 아베오와 3파전이 예상된다.

경차에서는 기아차가 이달 중순 7년 만에 완전히 바꾼 모닝 후속 모델을 출시한다. 신형 모닝은 '독특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의 스포티 유려미'를 콘셉트로 삼았다.

기아차 고유의 패밀리카가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과 볼륨감 있는 옆모습, 역동적인 휠 등이 눈길을 끈다.

기아차는 하반기에 경제성과 함께 비교적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한 박스스타일의 경형 크로스오버차량(CUV)도 내놓는다.

▷ SUV·MPV-큐브 등 수입차 줄줄이 상륙 = GM대우와 수입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SUV와 CUV, 다목적차량(MPV) 등이 줄줄이 상륙한다.

GM대우는 패밀리카와 미니밴의 특성을 모두 갖춘 MPV 시보레 올란도를 상반기 중 출시한다.

수입차 중에서는 BMW가 X3 완전변경 모델을, 크라이슬러가 랭글러와 뉴 컴패스 완전변경 모델을 각각 선보이며, 포드 뉴 익스플로러,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미쓰비시 RVR도 출시된다.

미국에서 기아차 쏘울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닛산의 '박스카' 큐브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볼 수 있다.

자동차업계 새해 첫 판촉 경쟁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업계가 신묘년 새해를 맞아 각종 할인과 이벤트로 올 한 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글로벌 판매 200만대 돌파를 기념해 1월 중에 모닝과 프라이드, 포르테, 쏘울 구매자에게 20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올해 결혼이나 입사를 했거나 운전 면허를 취득한 고객이 모닝과 프라이드, 포르테, 쏘울을 살 때 10만원을

르노삼성자동차는 최저 1% 금리의 파격적인 조건에 SM3와 SM5를 구매할 기회를 1월 한 달간 제공한다.

수입차 업계도 경쟁에 가세했다. GM 코리아는 2011년형 캐딜락 CTS 3.0 구매 고객에게 취득세 지원 또는 유예 금융리스 혜택 중 하나를 제공하며, 2010년형 SRX 3.0 럭셔리 모델을 구매자에게는 36개월 무이자 금융리스나 등록세 및 취득세 지원을 해준다.

쏘울·모닝 사면 20만원 깎아줘 현대 '가족' 이벤트 30만원 할인 삼성 SM7 36개월 무이자 할부

까아준다. 수입차를 보유한 고객이 K7과 오피러스를 사면 20만원을 할인해준다.

이달 중 전국 기아차 전시장 방문하면 추천을 통해 기아차 주석 10주와 차량용 고급 키트, GS25 스타벅스 커피를 주고, 1939년생부터 1987년생까지 토끼띠인 1~3월 출생자 전원에게는 파리바게뜨 케이크를 증정한다.

현대자동차는 '가족'을 주제로 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한 가족이 현대차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반떼와 쏘나타, 제네시스, 싼타페, 베라크루즈를 살 때 30만원 깎아준다.

한 가구에 5명 이상이 거주하는 고객이면 차종을 사도 30만원이 할인된다.

블랙박스를 그냥 받아준다.

쌍용자동차는 체어맨W, 체어맨H 고객에게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지원하며, 렉스턴과 카이런, 액티언스 포츠 고객에게 30만원을 할인해준다.

수입차 업계도 경쟁에 가세했다. GM 코리아는 2011년형 캐딜락 CTS 3.0 구매 고객에게 취득세 지원 또는 유예 금융리스 혜택 중 하나를 제공하며, 2010년형 SRX 3.0 럭셔리 모델을 구매자에게는 36개월 무이자 금융리스나 등록세 및 취득세 지원을 해준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1월부터 차량을 출고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근 발간한 '골프 제너레이션 : 좋은 자동차를 완성하는 45가지 기준' 단행본을 증정한다.

자동차 소식

현대차, 경력사원 채용

현대자동차는 신차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을 담당할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연구개발·마케팅·품질·구매 분야에서 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현대차 온라인 접수 사이트(pr.hyundai.com)로 하면 된다.

응시분야는 ▲신차개발 부문의 차량개발과 파워트레인, 전자개발 등 ▲기초선형 연구 부문의 기초기술연구 ▲마케팅 ▲품질 ▲구매 등 부문이다.

1차 서류전형, 2차 인·적성검사 및 면접, 3차 신체검사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2월 초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아차, 설 귀향 시승단 모집



기아자동차는 설 연휴 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K5·K7·스포티지R 등 기아차를 이용할 '설 귀향 시승단'을 모집한다.

기아차는 이 기간에 K5와 K7, 스포티지R 각 20대, 쏘울과 포르테 각 30대, 쏘렌토R과 그랜드캐니발R 각 40대 등 총 200대의 시승 차량을 운영한다.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20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에서 원하는 차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Advertisement for Venezia restaurant. Features a colorful illustration of a restaurant interior with chefs and diners. Text includes: '베네치아 상무점 200坪 OPEN', '2011년 2월 (상무회타운 2층)', 'ENJOY THE FOOD LIFE! 베네치아와 함께 하세요!!', '대·소 모임을 위한 단체석 완비', '베네치아 20%할인 및 포인트·적립·결제카드', 'SK멤버스카드 | OK Cash Bag신세계카드 | 광주은행비자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베네치아 상무점 | 베네치아 신세계점 | 062-360-1981', and a map showing the location at the intersection of Seomun-daero and Gwangju-daero.